

미히라산 등산루트

미히라산까지의 등산로는 왕복 4.5km이며, 미히라산 정상에 도달한 후 원래 지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2시간 남짓 걸립니다. 산 정상에서 원래 온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간은 약 80분으로 단축됩니다. 등산로는 완만하게 해발 차 300m를 올라가기에 대부분의 연령층, 다양한 수준의 하이커에게 적합합니다.

돗토리현과 오카야마현의 경계에 걸쳐 있는 미히라산(1,010m)에서는 다이센오키 국립공원의 광활한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주고쿠 지방의 최고봉인 다이센(1,729m)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히루젠판자의 세 봉우리가 자아내는 독특한 능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동쪽에는 기복이 있는 히루젠판과 히루젠판 분지가 마치 마니와시를 품은 듯이 유유히 펼쳐집니다.

등산로는 침엽수와 졸참나무 숲을 가로지르며, 계절과 상관없이 등산객을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잎으로 둘러쌉니다. 미히라산 정상과 남쪽에는 조릿대와 억새가 있는 넓은 들판이 펼쳐집니다.

1898년, 일본군은 승용마의 육성과 훈련을 위해 히루젠판의 초원 2,300헥타르를 담장으로 에워쌌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군마의 탈주를 막은 흙벽의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은 높게 자란 풀에 감춰져 있습니다.